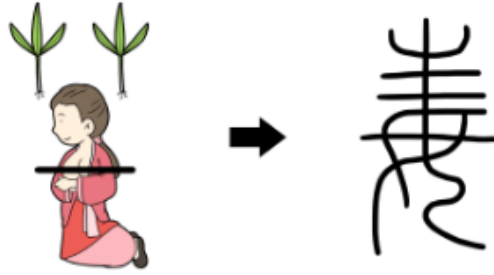


4(2)
-
41

회의문자①



毒

독 독

毒자는 '독'이나 '해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毒자는 艸(풀 초)자와 母(어머니 모)자가 결합한 것이다. 아이에게 젖을 물려야 하는 산모는 늘 먹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그러니 毒자는 '어미(母)가 먹으면 안 되는 풀(艸)'이라는 뜻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그러나 毒자는 母자가 아닌 母(말 무)자와 艸자가 결합한 것이다. 母자가 '~하지 마라'를 뜻하고 있으니 毒자는 '풀(艸)을 먹지 말아라(母)'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즉, '먹으면 안 되는 풀'이라는 뜻이다. 毒자는 폰트에 따라 母자나 母자가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많지만 정확하게는 母자가 쓰여야 한다.

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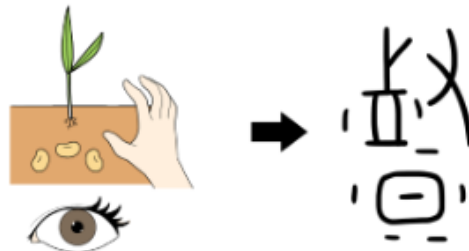
소전

毒

해서

4(2)
-
42

회의문자①



督

감독할
독

督자는 '살펴보다'나 '감독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督자는 叔(콩 숙)자와 目(눈 목)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叔자는 땅에 떨어진 콩을 줍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콩'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이렇게 콩을 줍는 모습을 그린 叔자에 目자가 결합한 督자는 '세밀히 살피다'라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콩이 잘 자라고 있는지를 자세히 살핀다는 뜻이었다. 다만 지금의 督자는 무언가를 세심히 관찰한다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督

갑골문

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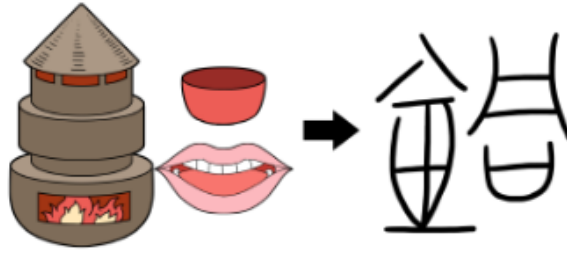
소전

督

해서

4(2)
-
43

형성문자①



銅

구리 동

銅자는 '구리'나 '동기(銅器)'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銅자는 金(쇠 금)자와 同(한 가지 동)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同자는 '같다'라는 뜻을 가지고는 있지만, 여기에서는 발음역할만을 하고 있다. 구리는 적동색의 금속을 말한다. 연하지만 부식이 적고 다른 금속과 잘 융합되는 성질이 있으므로 인류가 청동기 시대를 열도록 해주었던 광물이기도 하다. 그래서 초기의 화폐도 구리를 제련해서 만들어졌으며, 일상생활에서 쓰이던 낫그릇도 모두 구리를 섞어 만들었다. 고대부터 친숙했던 광물이 바로 銅이었다고 할 수 있다.

銅

금문

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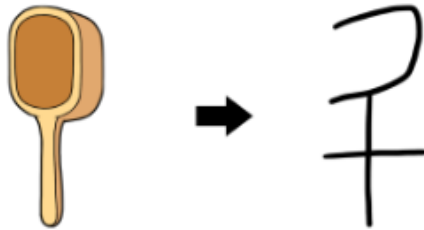
소전

銅

해서

4(2)
-
44

상형문자①



斗

말 두

斗자는 '말'이나 '구기'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斗자의 갑골문을 보면 마치 국자와 같은 斗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곡식이나 액체를 담는 용도로 사용하던 '구기'를 그린 것이다. 그러니 斗자에 있는 '말'이라는 뜻은 용량의 단위를 뜻하는 것이다. 이처럼 斗자는 국자를 그린 것이기 때문에 '북두칠성(北斗七星)'이란 북극 하늘에 있는 국자 모양의 7개 별자리를 뜻하는 것이란 걸 알 수 있다. 국자를 그린 것이기 때문에 斗자가 부수로 쓰일 때는 '(양을)재다'나 '용량'과 같이 국자의 용도와 관련된 의미를 전달하게 된다.

斗

갑골문

斗

금문

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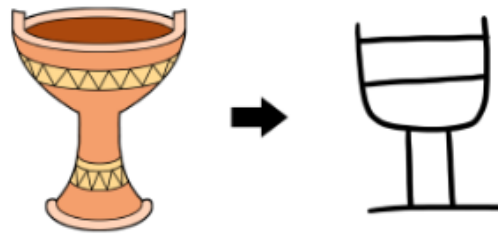
소전

斗

해서

4(2)
-
45

상형문자①



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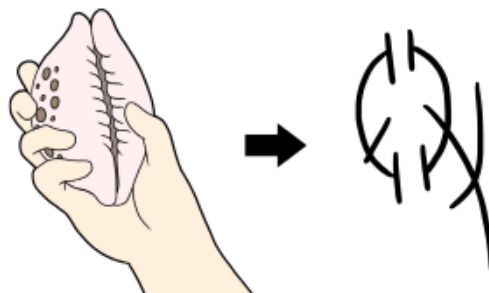
콩 두

豆자는 '콩'이나 '제기'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豆자의 갑골문을 보면 제를 지낼 때 사용하던 제기 그릇이 豆 그려져 있었다. 제기 그릇에 주로 콩을 담았었기 때문인지 豆자는 한(漢)나라 때부터 '콩'이라는 뜻으로 가차(假借)되었다. 그러나 豆자가 본래는 제기 그릇을 그린 것이기 때문에 다른 글자들과 결합할 때는 여전히 '제기'나 '제사'와 관련된 뜻을 전달한다. 다만 鼓(북 고)자처럼 일부 글자에서는 모양자 역할을 하는 때도 있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4(2)
-
46

회의문자①



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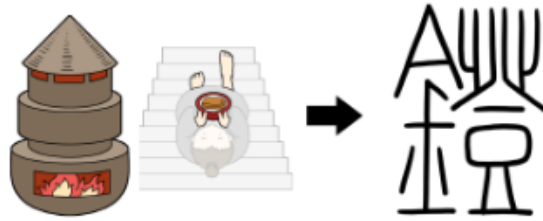
얻을 득

得자는 '얻다'나 '손에 넣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得자는 彳(조금 걸을 척)자와 貝(조개 패)자, 寸(마디 촌)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러나 갑골문에 나온 得자를 보면 마노 조개를 쥐고 있는 모습만이 得 그려져 있었다. 마노 조개는 동남아 일부 지역에서 만 볼 수 있었기 때문에 한때 중국에서는 화폐로 쓰였었다. 그래서 갑골문에서의 得자는 화폐를 손에 쥐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재물을 획득했다는 뜻을 표현한 것이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금문에서는 여기에 彳자가 더해지면서 지금의 得자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4(2)
-
47

회의문자①



燈

등 등

燈자는 '등'이나 '등잔', '초'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燈자는 火(불 화)자와 登(오를 등)자가 결합된 모습이다. 登자는 제사음식을 들고 제단에 오르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오르다'라는 뜻이 있다. 이렇게 '오르다'라는 뜻을 가진 登자에 火자가 결합된 燈자는 높은 곳에서 불을 밝히는 '등'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다만 소전에서는 '쇠 금'자가 들어간 鐙(등잔 등)자가 '등잔'을 뜻했었다. 등잔의 재질을 표현한 것이다. 하지만 해서에서는 이것이 불과 관련된 한자임을 표현한 지금의 '등 등'자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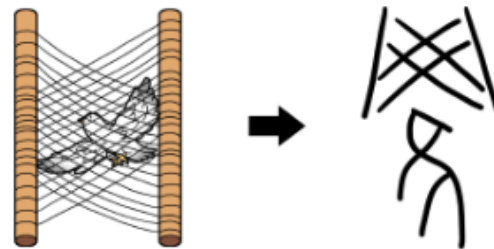
소전

燈

해서

4(2)
-
48

회의문자①



羅

벌릴 라

羅자는 '벌이다'나 '늘어서다', '그물 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羅자는 網(그물 망)자와 維(밧줄 유)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維자는 새의 다리에 밧줄이 걸려있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그런데 羅자의 갑골문을 보면 網자에 새를 뜻하는 隹(새 추)자만이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새를 잡기 위해 그물을 펼쳐놓은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고대에는 새가 잘 다니는 나무 사이에 그물을 쳐놓아 새를 잡곤 했다. 갑골문에서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려져 그물을 늘어놓았다는 의미에서 '벌이다'를 뜻했다. 다만 금문에서는 여기에 系(실 사)자가 더해지면서 마치 다리에 밧줄이 걸린 새가 그물에 잡힌 듯한 모습의 羅자가 되었다.

羅

갑골문

羅

금문

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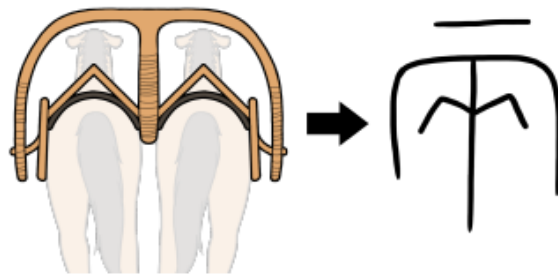
소전

羅

해서

4(2)
-
49

상형문자①



兩

두 량:

兩자는 '둘'이나 '짝', '무게의 단위'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그동안 兩자는 저울추가 나란히 매달려 있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해석했었다. 兩자가 '무게의 단위'로도 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兩자의 금문을 보면 이것은 마차를 끌던 말의 등에 씌우던 '멍에'와 '고삐 고리'를 함께 그린 것이었다. 두 개의 멍에가 있다는 것은 말 두 필이 마차를 끌고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兩자는 본래 '쌍'이나 '짝'이라는 뜻으로 만들어졌었지만, 후에 저울을 닮았다 하여 무게의 단위로도 쓰이게 되었다.

兩

금문

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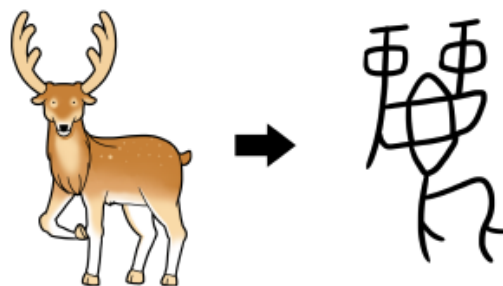
소전

兩

해서

4(2)
-
50

상형문자①



麗

고울 려

麗자는 '곱다'나 '아름답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麗자는 鹿(사슴 록)자와 丽(고울 려)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다만 丽자는 중국에서 麗자 대신 쓰는 간체자일 뿐이고 여기에서는 사슴의 뿔을 표현하고 있다.麗자는 두 마리의 사슴이 노니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보기도 하지만 금문을 보면 큰 뿔이 강조된 수사슴을 표현했다는 해석이 정확하다. 사슴의 큰 뿔은 수컷에게만 볼 수 있는 것으로 짝짓기 철에 자라게 되어 수컷끼리 싸움을 벌이는 데 쓰인다. 그래서麗자는 본래 '짝짓다'라는 뜻으로 쓰였다. 그러나 뿔이 다 자란 수사슴의 자태에서 착안해 '아름답다', '곱다', '맑다'라는 뜻이 파생되었다. 그러니 애국가에 나오는 '화려강산(華麗江山)'이라는 것도 '빛나고 아름다운 강산'이라는 뜻이다.

麗

금문

麗

소전

麗

해서